

고흥으로 우주 보러 가지 않을까?

5월 4~6일 우주항공축제

나로호·누리호 실물 전시

달탐사로봇 등 볼거리 풍성

“우리 고흥으로 우주 보러 가지 않을까?”

제14회 고흥우주항공축제가 오는 5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나로우주센터 일원에서 열린다.

“위대한 인류의 비상 지구인에서 우주인으로”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에서는 한국형 최초 발사체 나로호와 누리호의 실물체를 만나 볼 수 있는

특별전시관이 운영된다.

나로우주센터 인근에 조성하는 특별전시관을 통해 대한민국이 우주로 향하는 생생한 역사를 만나볼 수 있다.

전시관에서는 ▲한국형 과학탐사 로켓인 KSR-I, II, III, ▲인공위성을 우주에 진입시킨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발사체인 KSLV-I, II(나로호·누리호) ▲위성을 탑재한 페이로드 어댑터 ▲비행 중에는 대기 마찰열과 압력변화로부터 탑재 위성을 보호하는 페이로드페어링 ▲누리호 75t 엔진 ▲누리호 2차 발사 때 쏘아 올린 성능 검증 위성 모델도 함께 전시된다. 아폴로 11호 달 착륙선 모형도 제작, 선보인다.

또 축제 기간에만 만나볼 수 있는 ▲카이스트에서 참여하는 강강현실 달 표면 체험 ▲태양계 8개 행성으로 꾸며지는 지구 밖 우주로 가는 유일한 플랫폼 우주 터미널 ▲태양계에서 우주인을 만나 달과 행성을 여행하는 미디어아트 등이 함께 구성된 우주항공축제의 기대감을 높여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방문객이 함께 참여하는 우주인 카니발, 카이스트 달 탐사 로봇 시연 등 35종의 우주과학 체험, 지구인 무대에서 펼치는 더아트외계인 쇼 등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에게 재미와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다음 달 4~6일 '고흥우주항공축제'가 열리는 고흥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에서 나로호·누리호 실물형 조형물이 전시되고 있다.

<고흥군 제공>

구례군 여성 농어업인 지원

행복 바우처 포인트 지급 시작

구례군이 23일부터 '여성 농어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사업'의 포인트 지급을 시작한다고 이날 밝혔다.

여성 농어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사업은 전남도와 각 시·군이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여성 농어업인에게 문화 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이다.

구례군은 농어업인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바우처 포인트를 기존 선불카드 충전 방식에서 농협카드 포인트 지급 방식으로 변경했다.

농협 카드가 있는 여성 농어업인은 별도로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이날부터 바우처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구례군은 변경 사항을 문자로 안내하고 카드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별도 카드발급을 안내할 방침이다.

여성 농어업인 행복 바우처 카드는 의료(병원·약국) 분야, 유희,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이용할 수 있다.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카드 잔액은 모두 반납된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

광양 전통시장 3곳 신규 입점자 8명 선정

새단장 광양매일시장 95% 입점

광양 전통시장 3곳의 빈 점포들이 새 주인을 찾았다.

광양시는 지난 18일 광양매일시장과 광양5일시장, 옥곡5일시장 등 신규 입점자 8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서류 심사를 통과한 지원자 12명을 대상으로 지난 18일 면접을 벌여 8개 점포 새 주인을 찾았다.

면접 심사에는 광양5일시장 2곳(일반음식점·계과점), 광양매일시장 4곳(즉석식품·치킨·커피 전문점 등), 옥곡5일시장 3곳(치킨·일반음식점·수산물) 등 9개 점포에 12명이 참여했다. 일반 상가보다 임대료가 저렴해 소자본 창업에 대한 기대가 높은 30대가 참여가 많았다.

커피 전문점과 치킨, 제과 등 먹거리 업종에 여성들의 선호도가 높았다. 이 가운데 8개 점포 입점자가 선정됐다.

심사위원들은 지원 동기와 업종별 경력, 판매

전략 등을 평가해 전통시장에 적합한 입점자를 최종 선정했다. 합격자 명단은 광양시 누리집에 공개했다.

앞서 광양시는 공설시장 사용허가 심사위원회를 열어 청년상인 입점 요건 완화와 면접 심사 방법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한편 광양시는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새롭게 단장한 광양매일시장의 95% 입점을 마무리했다. 오는 5월3일 개장식을 열어 줄타기·동동구루무, 솟대타기, 퓨전국악 등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함께 할 예정이다.

허정량 광양시 투자경제과장은 “최근 소자본 창업으로 전통시장에 입점해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입소문이 난 점포들은 도심권에 점포를 확장하는 등 전통시장에 창업 성공의 장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소자본 창업을 꿈꾸는 시민들의 새로운 도전에 광양시가 힘이 되도록 전통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순천농협-농관원 로컬푸드 안전관리 업무협약

건강한 농산물 생산·유통 등 협력

순천농협(조합장 최남휴)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순천·광양사무소(소장 허재규)가 안전한 로컬푸드 농산물 생산·유통을 위해 힘쓰기로 약속했다.

순천농협에 따르면 지난 22일 농협 본점 대회의실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로컬푸드 농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식을 가졌다.

<사진>

체결식은 순천농협 로컬푸드 출하 농가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후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 농산물 인증 및 농산물안전관리제도 등 농산물 안전성 정기교육이 이어졌다.

양측은 협약에 따라 로컬푸드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를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부적합한 농산물에 대한 즉각 조치, 농가의 안전 농산물 생산 교육 실시, 순천농협 로컬푸드 농산물의 신뢰도 높이기 등에 노력하게 된다.

최남휴 조합장은 “농산물품질관리원 순천·광양사무소와 업무협약을 통해 생산자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소비자는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을 소



비할 수 있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상생하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재규 소장은 “협약식을 계기로 로컬푸드 농산물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순천 농산물 전체가 안전하게 생산될 수 있도록 농가 교육과 안전조치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여수사랑상품권 쿼알 코드 간편결제 도입

여수시가 상점에서 쿼알(QR) 코드를 찍으면 간편 결제할 수 있는 여수사랑상품권을 도입한다. 모바일 쿼알형 여수사랑상품권은 별도 상품권 카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지역상품권 모바일 앱 '착'(chak)으로 가맹점 쿼알 코드를 찍고 금액을 입력하면 결제할 수 있다.

가맹점주는 별도 결제 수수료가 없어 경영비용을 아낄 수 있다. 모바일형 상품권 충전은 카드형 여수사랑상품권인 '섬섬여수페이'와 함께 앱 '착'에서 충전할 수 있다. 사용할 때 카드 또는 쿼알 증

결제수단을 선택하면 된다. 여수시는 오는 5월 말까지 한국조폐공사의 협조를 받아 전문 인력이 지역 여수사랑상품권 등록 가맹점에 무상으로 쿼알 결제 푸러미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소비자 편의 증진을 위해 모바일형 여수사랑상품권을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보성군 다향대축제서 ‘더벤티’와 판촉행사

다음달 3~7일 닷새간 열려

다음 달 3일부터 7일까지 닷새간 ‘47회 보성다향대축제’를 여는 보성군이 커피 전문점 ‘더벤티’와 판촉 행사를 진행한다.

보성군은 축제 기간 ‘더벤티 벤트릭’을 운영하며 보성 말차 4종을 선보인다고 23일 밝혔다.

보성군과 더벤티는 지난 2월 업무협약을 맺었다. 더벤티는 전국에 1300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달 24일까지는 보성다향대축제 경품을 증정하는 ‘프리퀀시’ 행사를 진행한다.

한편 닷새간 한국차문화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보성다향대축제는 8개 분야 79종의 행사를 준비해 관광객 맞이에 나선다.

오는 30일에는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1인내소에서는 축제 홍보 공간을 부스 운영한다.

다음 달 3일 보성공설운동장에서는 보성군립극단과 하동군립예술단이 천년 차의 세계 도약을

알리는 협업 공연을 펼친다.

축제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알리기 위해 기획 상품 판매점(굿즈 팝업스토어)도 축제 기간 운영한다. 이곳에서 보성다향대축제의 캐릭터 상품과 보성의 특색이 담긴 기획 상품 8종을 살 수 있다.

녹색 옷이나 소품을 착용한 방문객이라면 햇차와 새싹 볼펜 등 소정의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축제장 곳곳에는 쉬어 가기 좋은 그늘막(아트쉐이드)과 쿼션 소파(반백)가 마련됐으며, 남북축차발에 감성적인 촬영 공간이 만들어진다.

방문객은 직접 차를 따고 뒤는 차를 마실 수 있는 ‘차 만들기 체험’을 하고 구매한 차를 바로 먹을 수 있도록 다구 푸러미를 무료로 빌릴 수 있다.

축제와 함께 ‘보성군민의날’ ‘서편제보성소리축제’ ‘일림산 철쭉문화행사’ ‘녹차마라톤대회’ ‘한국유티미스트 전국 요트대회’ ‘데일리 콘서트’ ‘드론 라이트쇼’ 등도 마련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광주문화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광주문화신협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